

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서비스 강화

도, 취약계층 이용시설 60개소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컨설팅 실시... 지속적 홍보·교육으로 공기질 적정관리 유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취약계층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 실내공기질 컨설팅을 통한 환경보건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도는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환경성 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간 소규모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 시설 등은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는 우려가 제기되어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

차원의 컨설팅을 2020년부터 추진해 왔다.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도내 시군에서 사전신청을 받아 총 60개소(소규모 어린이집 35개소, 노인요양시설 7개소, 지역아동센터 14개소, 노인복지관 4개소)를 선정하였고, 도는 '실내공기질관리법'상의 유지기준 6개항목에 대한 무료측정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중도 조사를 진행했다.

컨설팅을 진행하는 실내공기질 측정 전문가에 따르면 민중도 조사 결과 매우민중 68%, 민중 32%로 사업 확대를 희망하는 시설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말하며,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려면

하루 3번 30분 이상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실내에 정체되었던 오염된 공기를 실외로 배출하고 깨끗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희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시설 관리자들의 인식이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는 관리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오염원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하는 비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시 대상을 기존에 규모이상 시설에서 소규모 시설까지 추가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성과분석 등을 거쳐 현재 수립중인 '제1차 전라북도 환경보건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강해원 환경복지국장은 "동절기 특성상 실내활동 비중은 증가하지만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자연환기만으로도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 하다"면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까지 집중 관리해 도민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출향도민 환영 초청 행사 개최

도민의 날 맞아, 13개 시도 출향단체 1200여명 고향 찾아

도민의날을 맞아 출향도민들을 위한 환영 초청 행사가 24~25일 열리고 있다.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사)전북애환운동본부(총재 윤석정)와 함께 출향단체들과 꾸준한 소통 및 정기 모임을 통해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전북도약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행사도 출향도민의 고향에 대한 애郷심을 높이고 결속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마련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3년만에 치러졌고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전라북도회의장 등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전국 13개 출향 단체 임원 및 회원 등 관

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윤석정 전 북애환운동본부 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회 동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도민의 날을 맞아 출향인사 여러분을 뵈 게 돼 더없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북은 지금 기업하기 좋은 지 역, 살기 좋은 고향을 만들기 위 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민생 경제 살리기를 1순위로 삼아 대기 업 유치와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 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향 도민 여러분의 조언과 지원을 바 탕으로 지역 인력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기자

'울산 개최' 전국장애인체전 성료

전북, 금 41·은 39·동 52개 획득... 종합순위 11위 성적 거둬 육상 임진홍 선수, 2년 연속 대회 3관왕·한국신기록 1개 수립 등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펼쳐진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9~24일까지 6일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라북도 선수단은 26개 종목 500명(선수 318명, 임원 및 관계자 182명)이 참가했으며, 최종성적은 금41, 은39, 동52 종합순위 11위의 성적을 거뒀다.

금번대회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끝나무 선수로 육성하며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5회 연속 2관왕을 차지했던 육상트랙 임진홍 선수(T38/100, 200, 400m)가 금번대회 두 번째 출전하여 2년 연속 대회 3관왕과 한국신기록 1개를 수립하였으며, 대회 3관왕과 한국신기록 1개를 수립한 육상트랙 문지경 선수(F33/창, 원반, 포환), 사이클 이도연(H4), 김용기(H3), 허윤정(H3) 선수(개인으로, 개인도로복주, 팀리

이)가 3관왕에 올랐다. 그밖에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사격 유영권 선수(50m 권총, 공기권총), 한국신기록 1개를 수립한 사이클 김정민/최지윤(TandemB/개인추발4km, 개인도로복주), 석호진(C1/개인도로, 개인도로복주)과 태권도 임원준(DB/폼새 개인전, 단체전), 육상필드 김정호(F55/포환, 창), 양궁 김경화(리커브 개인전, 혼성2인조), 휠체어펜싱 류은환(에베, 플러레 개인전), 파크골프 염범열 선수(PCST2/개인전, 4인 조 단체전)가 2관왕을 차지했다.

우리 도 선수단은 대회기간 코로나 19 확진 선수(불링, 펜싱)와 부상선수(수영, 탁구, 육상) 발생으로 귀가 조치 등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전년도 보다 종합득점 6,567점을 추가 획득하며 종합합계점 85,818점 획득, 금41개, 은39개, 동52개, 총132개 메달을 획득하

여 지난해 보다 한계단 상승한 17개 시·도중 종합 11위를 차지하였다. 메달 또한 목표보다 초과 획득하며 메달순위 10위를 거두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사격 유영권 선수의 세계신 기록 1개를 비롯해 사이클 김정민/최지윤, 석호진, 육상트랙 임진홍, 육상필드 문지경, 황은미, 수영 장종운 선수의 총6개의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풍성한 기록잔치가 이루어졌다.

사이클 종목이 대회 4회 연속 종합우승, 태권도 종목 2년 연속 종합 2위, 양궁, 사격, 골프 종목 각 종합 4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우리 도 소속 국가대표 및 상비군 선수(사이클 이도연(금3), 김용기(금3), 탁구 이근우(은1, 동1), 백영복(동2), 사격 유영권(금2, 은1), 펜싱 류은환(금2), 수영 장종운(은1, 동1), 양궁 김경화(금2, 은2), 유도 이현아(금1))들의 활약으로 우리 선수단 성적에 기여했다.

이밖에도 대전 불운으로 고득점 획득이 가능한 철강추구팀, 지적능구

팀이 1회전 탈락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여자케이트불링 3위, 시각전맹 추구팀, 뇌성추구팀, 혼성케이트불링 각 5위, 여자좌식배구팀, 휠체어리커브 오픈팀 각 6위 등 구기종목의 선전과 지속적인 끝나무·신인선수 발굴·육성 사업을 통해 육성해온 젊은 선수(육상 임진홍, 이현지, 유도 이현아, 펜싱 류은환, 사이클 석호진, 박진하, 허윤정, 태권도 임원준, 수영 장종운, 양궁 조미나 등)들의 활약이 있었다.

하나 차기 대회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은 험난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벌써 금번 대회에서 좋은 기량을 선보인 젊은 끝나무 선수에 대해 타 시·도의 영입설이 난무하여, 선수 유출 방지를 위한 팀 및 선수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절실하며, 훈련시설을 포함한 훈련여건 개선, 전문지도자 배치 확대, 훈련장비·용품지원, 신인선수 발굴·육성, 우수선수 관리뿐만 아니라 장애인선수의 지속적 체육활동 및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직장운동부 설립도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체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수 기자



'메타버스 시대, 세계유산의 과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범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 개최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세계유산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시는 24일(재)백제세계유산센터 주관으로 국립익산박물관에서 '메타버스 시대, 세계유산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현을 시장과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최광식 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한 시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익산 공주, 부여 백제 세계유산의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백제세계유산센터의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고 디지털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 강연에 나선 최광식 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접근이 어려운 문화유산이나 문화재를 AR, VR,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복원 또는 감상할 수 있는 사례를 들며 저작권이나 초상권

에 대한 논의와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안호 문화재청 디지털문화유산팀장은 정부가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조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 등이 포함되어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뒤이어 발표한 안재홍 카이스트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새로운 관점에서 문화유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전통적 방식과 문화유산 기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세계유산이 기술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백제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미래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할 계획 이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 최대 스타트업 행사 '전북도 창업대전' 27일 개최

투자,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지원 종합 프로그램 운영 2주간 도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집중 운영, 성과 창출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7일 전주대학교 회방홀에서 전북지역 최대 규모 창업 축제인 '제7회 스타트업 전북 창업대전'을 연다고 밝

혔다.

창업 붐 조성과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되는 이번 창업대전은 2주간 창업지원이 집중 운영되는 '창업주간

선포식'을 포함해 투자유치, 판로개척, 창업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 등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연속으로 진행된다.

창업대전 메인행사장에서는 드론 키트 제작, 드론 축구, 3D 메이커, 아크릴 무드등 제작, 도내 혁신기술 제품 전시 등 종합 체험관과 MR/VR 콘텐

츠 체험 이동 버스를 통해 실감 디지털 체험관을 운영한다.

또 도내 창업지원 정보와 상담, 컨설팅이 가능한 '종합 상담관'을 개강해 창업지원 정책과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연속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창업대전(www.jbstartup.com) 검색을 통해서도 실시간 행사 진행 현황 확인과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김경수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식물안전관리인증 HACCP(적용업종) 제2019-5-9297호

식물안전관리인증 HACCP 식물의약품안전처

조합원이 생산한 국내산 쌀, 팥 등을 이용하여 정성껏 만듭니다.

강추

쫄쫄떡 1말 --- ₩ 110,000원

노랑콩시루떡 1말 --- ₩ 100,000원

호박흑미자인절미 1말 --- ₩ 140,000원

팥시루떡 1말 --- ₩ 90,000원

Best!

절편 흰떡 --- ₩ 40,000원

쫄쫄떡 1말 --- ₩ 150,000원

신머리찰떡 1말 --- ₩ 100,000원

쫄쫄떡 세트 1box --- ₩ 30,000원

쫄떡 --- ₩ 80,000원

※ 상기 메뉴 이외에도 각종 떡 주문 받습니다.

익산시 인북로 6길 58 (인화동 2가) 우문전화 063)840-1845
익산농협 하나로마트(빛면 위치) 계좌번호 : 351-8400-1845-63
예금주 : 익산농협 떡 방앗간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